제490호 (2010-22) 2010. 9. 27

e-KIET 산업경제정보

우리나라 지역경쟁력의 평가와 시사점

[요 약]

○ 본고에서는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과 지역 간 경쟁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파악하여,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
- 이를 위해 23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쟁력의 원천을 기업부문, 산업부문, 입지부문, 정책부문으로 나누고, 지역경쟁력의 수준을 상위, 중위, 하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쟁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

○ 설문조사 결과, 지역경쟁력 요인 중 지역경쟁력의 상·중·하위 지역 간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요인과 차이를 갖는 요인 존재

- 기업부문 :‘ 노사관계의 안정성 ’을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, ‘ R&D투자 및 연구인력 정도 ’는 지역 간 커다란 격차 존재
- 산업부문 :‘ 지역 내 대표산업의 존재 ’를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,‘ 지식기반산업의 존재 ’는 지역 간 커다란 격차 존재
- 입지부문 :‘ 쾌적한 자연환경 ’을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,‘ 인프라 접근성 및 우수성 ’은 지역 간 커다란 격차 존재
- 정책부문 :‘ 지자체 장의 역량 ’을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, 지역 간 평가 격차가 큰 요인은 부재

○ 향후에는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정책추진 필요

- 지역경쟁력 상·중·하위 지역 간 공통요인과 차별화요인을 파악하여, 미흡한 요인에 대한 보완 필요
- 각 지역 내에서 저평가를 받은 지역경쟁력 요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함께, 상위지역과의 격차완화 정책 병행추진 필요
- 지역경쟁력을 반영한 시·군·구별 장기 지역발전전략 수립 필요

KIET 산업연구원

□ 지역경쟁력의 정의와 구성요소

○ Storper(1997)[1]는 지역경쟁력(regional competitiveness)을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유지, 향상시키면서 성공적인 기업을 유치,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”으로 정의함.

- 학자에 따라 지역경쟁력을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, 여기서는 Storper의 정의에 입각하여 해석함.

○ 많은 연구에 의하면,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 내지는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(<표 1> 참조).

○ Gardiner 등(2004)[2]은 지역경쟁력의 원천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 및 최종 성과 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지역경쟁력의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냄(<그림 1> 참조).

-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지역의 환경, 의사결정 과정, 사회구조, 지역문화 등이 지역경쟁력의 최하부 원천을 구성하고, 지역경제구조 등 네 가지 요인이 그 다음 단계에 위치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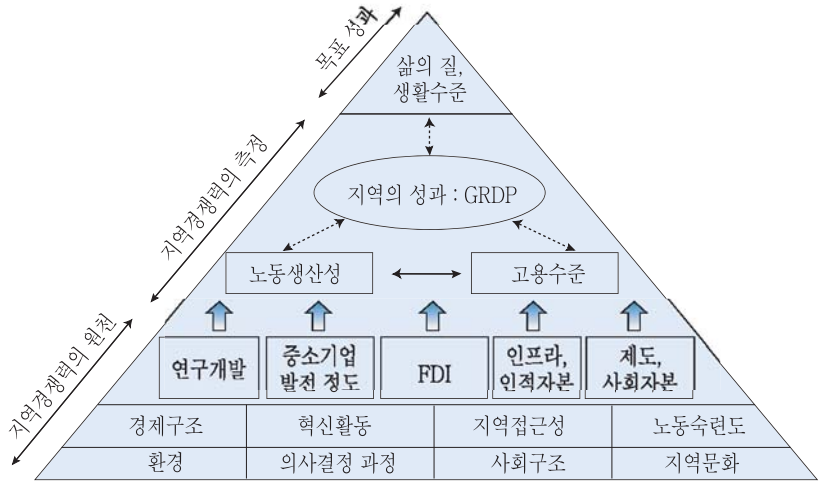
<표 1> 지역경쟁력의 개념

	정 의	대표 학자	이론적 기반	주요 결정요인
광의	주민의 소득수준을 유지,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	Storper, Reinert, Martin, Camagni	절대적 경쟁우위론	입지요인, 사회자산, 인프라, 공간정책, 노동력, 투자, 지식 등이 절대적 경쟁우위 창출
협의	지역경쟁력 = 지역생산성	Porter, Aula, Fratesi	경쟁적 다이아몬드 모델	기업환경, 클러스터, 지역전략 등이 지역혁신역량 창출

자료 : 산업연구원 정리 작성.

1) Storper, M., *The Regional World : Territorial Development in a Global Economy*, Guildford Press, 1997.
2) Gardiner, B., R. Martin and P. Tyler,“ Competitiveness,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cross the European Regions ”, *Regional Studies*, Vol. 38, 9, Dec. 2004.

〈그림 1〉 Gardiner의 지역경쟁력 피라미드 모델



자료 : Gardiner et al.(2004), p.1048.

–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지역의 노동생산성 및 고용에 영향을 주고,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(GRDP)이 변화되며, 최종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.

○ 이상의 이론에 입각하여 지역경쟁력에 관한 정성적인 설문을 실시한 예로는 Porter와 Bowes를 들 수 있음.

– Porter(2001)[3]는 정성적 지역경쟁력 요인을 20개로 구성하고, 사전적으로 지역발전이 우수한 5개 지역을 조사·비교하였으며, Bowes(2003)[4]는 41개 요인을 구성하여 탄광지역이었던 South Yorkshire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.

–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Porter와 같이 여러 우수한 지역을 설문하여 상호 비교할 수도 있지만, Bowes와 같이 특정 낙후지역만을 대상으로 어떤 요

3) Porter, M. E., *Clusters of Innovation: Regional Foundations of U.S. Competitiveness*, Council on Competitiveness, Oct. 2001.

4) Bowes, N., "The Competitiveness of Former Coalfields : Manufacturing Managers' Perceptions of Competitiveness Strengths and Weaknesses in South Yorkshire", *Local Economy*, Vol.18, No.2, May 2003.

인 때문에 지역경쟁력이 취약한가를 파악하여,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음.

□ 정량적 지역경쟁력 평가 후, 정성적 설문조사 추진

○ 본고에서는 Porter와 Bowes 등 기존 연구에 입각하여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40개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음.

-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과 지역 간 경쟁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,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.
- 이를 위해 지역경쟁력의 원천을 크게 기업부문, 산업부문, 입지부문, 정책부문으로 나누고, 이 각각의 구성요소를 10개씩 선정함.

○ 설문조사 대상지역은 232개 기초지자체를 광역도시형, 인구 20만명 이상의 거점도시형, 인구 20만 미만의 중소도시형, 농산어촌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.

- 그 다음, 생산성을 반영한 지표와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지표에 의거하여, 지역경쟁력을 정량적으로 측정(<표 2> 참조)하여 서열화하였음.

○ 설문조사 대상지역은 4개 유형별로 지역경쟁력 상위지역, 중위지역, 하위지역 등으로 나누고, 상·중·하위 지역별로 각각 2개씩 구분하여 총 24개 지역을 선정하였음.[5)]

5) (1) 광역도시형 : 상위지역 - 유성구, 광주 서구, 중위지역 - 부평구, 동대문구, 하위지역 - 대구 중구, 부산 서구, (2) 거점도시형 : 상위지역 - 화성시, 천안시, 중위지역 - 군포시, 양산시, 하위지역 - 여수시, 마산시, (3) 중소도시형 : 상위지역 - 안성시, 청원군, 중위지역 - 제천시, 달성군, 하위지역 - 삼척시, 남원시, (4) 농산어촌형 : 상위지역 - 양평군, 함안군, 중위지역 - 청도군, 의령군, 하위지역 - 임실군, 장흥군

<표 2> 지역경쟁력 평가 지표 및 가중치

	세부 지표	가중치	세부 가중치
주민 생활 여건 지표	인구증가율 순위	1/4	1/4
	종사자증가율 순위	1/4	1/4
생산성 관련 지표	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	1/4	1/8
	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순위		1/8
	1인당 서비스업 순이익 순위	1/4	1/8
	1인당 서비스업 순이익 증감 순위		1/8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○ 회수된 설문조사표는 총 769부였으며, 설문조사 대상자는 기업 종사자 50%와 공공기관 종사자 50%로 구성됨.

- 설문조사 대상지역을 지역경쟁력 수준에 따라 상위·중위·하위로 나누어, 지역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요인과 지역별 격차가 큰 요인을 추출하였음.
- 각 문항을‘ 매우 낮음 ’,‘ 낮음 ’,‘ 보통 ’,‘ 높음 ’,‘ 매우 높음 ’등으로 구분하고, 각각에 대해 1 5점을 부여한 다음, 각각에 20을 곱하여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였음.

□ 지역경쟁력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 존재

○ 4대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, 지역경쟁력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지역경쟁력 요인 중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요인과,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평가요인이 도출됨.

<기업부문>

○ 기업부문에서는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의 경우‘ 노사관계의 안정성 ’,‘ 기업

대표의 기업가정신 ’,‘ 종업원 간 인화(신뢰) 정도 ’ 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(<표 3> 참조).

-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상위지역뿐 아니라, 중·하위권 지역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아,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.

○ 기업부문에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격차가 10%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‘ 첨단기업의 입지 정도 ’와‘ R&D투자 및 연구인력 정도 ’였음.

- 그 중 ‘ R&D투자 및 연구인력 정도 ’는 광역도시형의 경우 ‘ 높음 ’과 ‘ 매우 높음 ’을 합한 비율이 38.6%나 된 반면, 농산어촌형에서는 그 비율이 7.1%에 불과해 지역유형별로도 격차가 매우 컸음.
- 그 외에,‘ 제품다양성 정도 ’와‘ 신제품 개발 및 성과 ’는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격차가 약 7%포인트 이상이었음.
- 이러한 요인들은 상위지역 기준으로도 60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, 하

<표 3> 기업부문의 지역경쟁력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

단위 : 점수

	상위지역	중위지역	하위지역	격차 정도
기업대표의 기업가정신	69.8	69.1	64.8	√
첨단기업의 입지 정도	58.8	52.4	47.7	√ √ √
제품다양성 정도	59.9	57.0	52.3	√ √
장기적인 기업전략 보유 정도	62.9	60.9	59.1	
R&D투자 및 연구인력(양, 질) 정도	58.1	55.5	48.0	√ √ √
신제품 개발 및 성과(제품혁신)	59.1	58.0	50.5	√ √
원가절감 노력과 성과(공정혁신)	65.0	62.4	59.1	√
마케팅 능력	61.2	60.8	58.6	
종업원 간 인화(신뢰) 정도	69.8	69.3	66.8	
노사관계의 안정성	70.0	71.2	68.5	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주 : 1) √√√는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10%포인트 이상 격차인 경우, √√는 7~10%포인트 격차, √는 5~7%포인트 격차를 의미.

2) ▭는 상위지역 기준의 상위 3대 요인.

위지역뿐만 아니라 상위지역에서도 향후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.

<산업부문>

○ 산업부문은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의 경우‘ 지역 내 대표산업의 존재 ’,‘ 산업집적지의 존재 ’,‘ 산업 내 선도기업의 존재 ’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(<표 4> 참조).

○ 산업부문도 각 요인별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평가결과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졌는데, 10개 요인 중 상·하위지역 간 격차가 10%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‘ 지식기반산업의 존재 ’였음.

- 특히‘ 지식기반산업의 존재 ’는 광역도시형의 경우‘ 높음 ’과‘ 매우 높음 ’을 합한 비율이 24.4%나 된 반면, 농산어촌형에서는 4.9%에 불과해 지역유형별로도 격차가 매우 컸음.
- 그 외에, 상·하위 지역 간 격차가 7%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 ‘ 지역

<표 4> 산업부문의 지역경쟁력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

단위 : 점수

	상위지역	중위지역	하위지역	격차 정도
지역 내 대표 산업의 존재	60.0	57.6	58.1	
산업 내 선도 기업의 존재	58.3	54.8	53.7	
산업집적지(클러스터)의 존재	58.7	57.3	53.6	√
산업 내 협력 네트워크의 존재	57.7	57.0	52.2	√
다양한 산업의 존재	56.8	53.8	48.1	√ √
산업 내 전후방 연관기업의 수	56.0	53.2	49.9	√
지식기반산업의 존재	56.9	50.5	46.0	√ √ √
산업 내 외국기업의 입지, 수출지향성	54.0	48.2	46.1	√ √
주변지역의 풍부한 시장수요	54.4	54.5	49.8	
컨설팅, 광고 등 서비스기업의 충분한 존재	50.5	49.0	46.2	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<Q Ñ ™>

(&ìD Ô}¿	73.6	74.5	56.4
`ûà W “	51.6	50.7	50.6
æ•, (ý ,IT KÐÄD }Ô¿ Â û¿	63.9	64.3	52.5
ŠÙ ¢2ñD ûà Õ Â ‘ó I¿	58.7	58.6	51.6
wôà ¤‘: ! Ñ³Q , PØ a	59.3	58.9	57.2
wôà ¤ : a •±ÈdD û¿	59.5	60.0	60.1
ÑÉÀ àû D £x	65.0	61.8	60.5
ûà Ž% Ñ&¸D “d	55.1	57.0	54.8
±¹ @ (Â , ™…	63.8	63.8	63.0
Ýx à WË ƒ	73.1	71.9	74.0

지는 기업이나 산업부문의 경쟁력 차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음(<표 7> 참조).

○ 그러나 앞으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이 무엇인지에 관해 순위를 조사한 결과, 대체로 정책부문과 산업부문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(<표 8> 참조).

- 이는 미래에는 입지처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문이나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부문보다는, 외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역 관련 정책 및 산업부문의 경쟁력 요소 강화 지원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.

<표 7> 현재의 지역경쟁력 부문별 평균점수 비교

단위 : 점수, %포인트

	상위지역	중위지역	하위지역	격차 정도
기 업	63.5	61.7	57.6	5.9
산 업	56.3	53.6	50.4	5.9
입 지	62.4	62.2	58.1	4.3
정 책	59.9	59.8	59.8	0.1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<표 8> 미래의 지역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문

단위 : %, 우선순위 가중종합

	상위지역	중위지역	하위지역
기 업	22.9	23.3	22.7
산 업	26.0	26.2	27.4
입 지	23.6	24.0	23.8
정 책	27.5	26.4	26.0
계	100.0	100.0	100.0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주 : 중요순서별로 순위를 정한 것을 1위에 4점, 2위에 3점, 3위에 2점, 4위에 1점을 부여한 다음 각 점수를 합하여 부문별 비중을 구함.

□ 지역경쟁력의 공통요인 개선 노력과 함께, 차별화 요인도 고려하는 지역정책 필요

○ 지역경쟁력의 상위, 중위, 하위지역 간에는 기존의 Porter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공통요인과 차별화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공통요인은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에서 고평가하는 요인으로, 중위, 하위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인 반면,
- 차별화요인은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격차가 큰 요인으로, 향후 중위 및 하위지역이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.
- 따라서 공통요인의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,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열악한 차별화요인도 동시에 파악하여 보완해 주어야 할 것임.

○ 향후에는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·군·구 차원의 정책추진이 필요함.

-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지역 내에서 저평가를 받은 요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함께, 상위지역과의 격차가 큰 요인을 중심으로 한 격차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- 특히 각 지자체별로 정성적인 측면의 지역경쟁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, 무엇이 지역경쟁력 약화요인인지를 파악하여 보완함과 동시에, 그 지역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을 확인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○ 지금까지 16개 시·도 내지는 5+2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고려되었던 지역정책들이 향후에는 기초지자체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.

- 강한 역량을 가진 기초지자체 없이는 시·도나 광역경제권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, 시·군·구 단위의 지역경쟁력을 반영한 장기 지역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.
- 여기에는 지역 내에 입지하는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, 지역의 입지여건 개선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·제도적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.

김 정 홍
(연구위원· 지역발전연구센터)
kimjh@kiet.re.kr
(02-3299-3039)

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**www.kiet.re.kr**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
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& Trade

발행인 송병준 / 편집인 김휘석 / 편집·교정 조계환
130-742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66
Tel : 3299-3114 / Fax : 963-8540 / www.kiet.re.kr